

지역 소식통

정읍시,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에 6억2000만원 투입

정읍시가 기후변화와 꿀벌 실종 현상으로 시름이 깊어진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총 6억 2,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화분과 벌통 등 필수 기자재를 지원하고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시는 1월 중 보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농가가 적기에 고품질 양봉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세부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꿀벌의 먹이가 되는 화분(꽃가루) 지원에 1억 9,000여만 원, 노후화된 벌통 교체 및 지원에 2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인공 꿀벌집인 소초관을 비롯한 각종 양봉 기자재 구입비로 1억 9,000만 원을 배정해 생산 기반을 다진다. 시는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말벌 퇴치 장비와 꿀 생산에 필요한 저온저장고, 채밀기(채밀 운반기), 설탕 용해기 등을 지원해 노동력 절감과 품질 고급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농가 신청

정읍시가 불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과 미세먼지의 주범인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월 20일까지 농가로 직접 찾아가 전정 가지와 고춧대 등을 무료로 파쇄해 주는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희망 농가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부산물 소각을 방지해 산불 위험을 낮추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자체적인 파쇄 작업이 힘든 고령 농가나 여성 농업인, 소규모 농업인들의 일손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목적이 있다. 시는 접수 마감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2월부터 파쇄단을 현장에 순차적으로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민생은 두텁게, 미래는 확실하게”

정읍시, 신년 기자회견 개최... 민생 경제 회복·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시정 역량 집중

정읍시가 2026년을 '실행과 완성의 해'로 선포하고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8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구체적인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시는 '민생은 두텁게, 미래는 확실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시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의 재원은 관행적 사업 재검토와 철저한 예산 절감을 통해 마련됐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229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재정운영상의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안정지원금 △카드수수료 지원 △이차보전 등 총 33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이자 지원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청년은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신혼부부는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지원 대상을 넓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고창군,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사업 총력전

생활보장위 상시화로 저소득층 권리구제 적극 추진 등

고창군이 기초생활보장 분야 기관표창(전북도)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사업에 총력전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고창군 사회복지과는 생활보장위원회 개최를 상시화해 저소득층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사회보장급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 대해선 직원이 주민과 직접 만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안내하며



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이자 지원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청년은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신혼부부는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지원 대상을 넓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정읍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계획도 구체화했다. 시는 바이오 지식산업센터,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를 연계해 연구와 창업, 생산이 어우러진 바이오 산업 혁신

거점을 조성한다. 또한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예비특구 지정 사업과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을 통해 산업과 복지, 관광이 결합된 반려동물 산업 벨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운영하고, 스마트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해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기반을 다진다. 관광 분야는 내장호와 조각공원 일원에 치유센터와 물빛썰매장을 조성하고, 문화광장에 익스트림 놀이시설을 도입해 가족 단위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보육과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 전용병동 운영을 내실화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는 의료 환경을 제공한다.

이학수 시장은 "2025년이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의 해였다면 2026년은 그 성과를 확실한 결실로 완성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정읍시는 시민의 삶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실행해 정읍의 기본 좋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이 지난 7일 우성회관에서 고창마켓 관계자와 생산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고창마켓 신년회'를 개최했다.

'2026년 고창마켓 신년회' 성황리 개최

지역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 공유 등 상생 의지 다져

고창군이 지난 7일 우성회관에서 고창마켓 관계자와 생산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고창마켓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회는 지난 한해 고창마켓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맞아 지역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고창군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 고창마켓 입점농가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협력과 상생의 의지를 다졌다.

또한 지역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171개 농가업체가 입점해 있는 고창마켓은 집배송 시스템 및 다양한 SNS채널(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을 활용한 마케팅 극대화로 작년

한해 22억원 매출을 달성했다.

올해는 냉장과 냉동 품목까지 배송 범위를 확대하고 연령별·지역별 구매패턴 등 확보된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매출향상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홈페이지 리뉴얼과 전용 앱(App) 개발을 완료해 특별 할인 정보 등의 실시간 알림을 통해 고객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마켓은 지역 농업인의 판과 정성이 담긴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중요한 유통 창구"라며 "앞으로도 로컬푸드 중심의 지속가능한 유통 체계를 구축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재정집행률 전북 군 단위 1위 달성

작년 하반기 소비·투자서... 전국 군 단위 6위·도내 군 단위 1위 기록

부안군은 2025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률 전북특별자치도 군 단위 1위를 기록하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정집행 역량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군은 재정집행 분야에서는 대상액 9,372억원 중 8,26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88.14%를 달성했다. 이는 전북은 물론이고 전국 82개 군 단위 가운데 1위의 성과다.

소비·투자 분야에서도 4분기 목표액 850억원 대비 986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116%를 기록하며 전국 군 단위 6위, 전북 군 단위 1위에 올랐다.

앞서 군은 2025년 1분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행정안전부와 전북자치도 평가 모두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총 1억9,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높은 재정 집행률을 기록하는 등 연중 일관된 재정집행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평가를 통해 검증된 재정 관리 체계가 분기별 성과에 그치지 않고 하반기 집행성과로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군은 불확실한 재정 속에서도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적극 노력했다.

또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연초부터 사업별 집행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보고회를 통해 집행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정이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올해부터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최대 70% 지원

정읍시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2026년부터 기존 정부 지원금 외에 시비를 추가로 투입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중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이며, 대상 아동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까지다. 지원 금액은 가구의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30%, 2자녀 이상 가정은 70%를 시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돌봄서비스 신청

폼폼히 살피게 된다.

올해 사회보장급여제도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 △승합·화물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기존) 1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차량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는 일반재산 환산을 적용(→(변경)소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동

과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신청은 올해 1월부터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기존 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우 정부 지원 유형 재평가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여성가족과(063-539-5553)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